

# 탄소 ↓ 재생에너지 ↑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앞장

## 광주 자치구 최초 종합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45억원 투입

광주 광산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행동,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 대책 마련 등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2045 탄소중립도시 광산' 달성을 목표로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물론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이 계속되고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광산구는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자치구에서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 빠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2045년 광산구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기후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산 ▲필환경시대 사람중심도시로의 전환 ▲지역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등 4대 원칙과 32개 과제를 담은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 환경, 자원순환, 에너지, 녹지, 농업 등 총 10개 분야 82개 사업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를 총망라한 광산구의 '기후위기 대응 종합 전략' 격이다.

광산구는 또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으로 '광산구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후위기 대응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시민 주도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역량을 쌓고 있는 광산구의 행보는 앞으로 상당수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광산구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내년 국비 23억 원 등 총 45억 원을 투입해 신창, 신가, 하남, 비아, 첨단1동 일원 총 2387구에 태양광 188개소(총 2264kW), 태양열 49개소(총 438㎡ 규모), 연료전지 1개소(10kW)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도 선정돼 7억 원을 확보하고, 광산구 보건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수거 보상 포인트제, 전용 수거함 설



광산구는 지난 4월 '탄소중립도시 광산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을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 등을 통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자원순환해설사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 교육, 1회용품 안쓰기 100인 시민 도전단, 다회용컵 할인 카페 지원, 담배꽂초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비롯해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 등 공공기관 차원의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들이 쌓이면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에서 우수

상을 받기도 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비대면 시민참여 환경정화 캠페인 '줍깅'도 활발하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줍깅 챌린지,스탬프 투어 등 참여자가 4375명에 이른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켜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탕으로 광산구가 한발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신가동 주민자치회 으뜸상 윤남동 주민자치회 공로상

### 광산구 '좋은이웃 밝은동네' 2관왕

광주 광산구는 "신가동 주민자치회와 윤남동 주민자치회가 우수한 자치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각각 '밝은 동네' 부문 으뜸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좋은이웃 밝은동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살맛 나는 지역 만들기 애정선 개인과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밝은 동네 부문에서 으뜸상을 받은 신가동 주민자치회는 세대통합 복합문화센터 건립, 마을상권 지도 및 브랜드 슬로건 제작, 신가동 옛 마을 기억관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민주적 운영으로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광산구 제1호 주민자치회가 꾸려진 윤남동은 주민방역단 운영 등 주민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비대면 주민총회를 활발히 운영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주민자치를 실현한 성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정당한 주민자치 실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바구니치킨 송정점'

### 매월 치킨 40마리 후원



바구니치킨 송정점(대표 김명현)이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아이들에게 매월 치킨 40마리(70만 원 상당)를 후원하기로 했다.

김명현 바구니치킨 대표는 "유년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선영 송정1동장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준 김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본량동 주민들-추진위 '한전 발전기금' 갈등

### 6억5천만원 추진위 독단 집행...배임·횡령·사문서 위조 고발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한전에서 철탑공사 보상금으로 지급된 6억 5000만원의 사용처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 내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샀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농성에 돌입했고, 한전측은 피해보상금으로 6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해당 공사를 완공하고, 가칭 '본량동 마을 발전기금 운영 추진위원회' 측에 발전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본량동 주민들 사이에선 한전 발전기금 사용처를 놓고 '일부 추진위원회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한 것처럼 허위 위임장을 받아 발전기금을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9월 열린 '한전 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서도 마을 주민 70여명이 참석해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주민은 "추진위원회측이 한전측에 주민의 동

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동서 제출하고 밀짚했던 한옥 경로당을 헐어낸 뒤 68평의 근린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면서 "특히 추진위원장 아들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발전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부터 기금이 집행된 과정을 보면 특정 추진위원회가 주도해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광주지검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주민은 "본량동 주민들 사이에선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단장, 사회단체협의회장 등이 그동안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동맹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평온했던 마을이 두 쪽으로 쪼개진 듯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광산구민의 날' '행복으로 걷기대회'

### 12일 광주여대서 기념식...양궁 안산 선수 참여

광주 광산구는 "12일 오전 10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제30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이지만,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집단면역 달성,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12일 개최를 결정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번 기념식은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기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광산구민과 일상회복의 시작을 자축하고, 광주여대 양궁부 안산 선수 등이 참여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기 위한 청사진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되찾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건강과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광산구민의 날 30주년을 기념한 '행복으로 걷기대회'도 개최한다.

걷기대회는 이날 오후 2시 풍영정전 3개(광주여대 정문, 도천교 일원, 풍영체육시설) 지점에서 출발해 최종 기념행사(오후 3시 30분)가 열리는 수완호수공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걷기챌린지(걷기 앱 '워크온' 가입자, 걷기코스 완보 시 주점으로 상품 지급)를 비롯한 건강체험부스·버스킹 공연 등 수완호수공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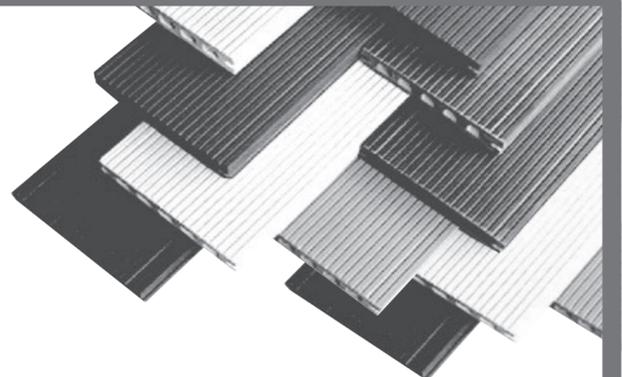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구민의 날 기념식은 광산구민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선연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걷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시민의 건강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억눌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걷기대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선착순 200명)은 전화(062-960-8085) 또는 메일(chlwhdgn5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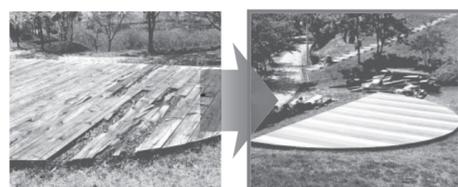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